

2016 여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2016. 7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임*희

이화 봉사단은 대학 진학 후 나의 첫 봉사활동으로, 같은 봉사단 팀 친구들과 한 달 이상을 꾸준히 고민하고 회의하는 등 나에게서는 대학 생활 한 학기 중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이었고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특히나 이 팀에서 리더를 맡아 조금의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하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회의를 거쳐 결정하면서 리더라는 자리의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마치 세 명의 리더가 있는 느낌이었다. 또한 이렇게 세 명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해결 방법을 통해 4박 5일간 준비했던 모든 일정들을 조금은 서투르지만 생각했던 대로 잘 해낼 수 있었다.

물론 4박 5일간 팀원들끼리 조금의 의견충돌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일정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소화해내야 했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팀원 간 부딪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충돌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화 봉사단 활동을 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견 차이로 인해 생기는 사소한 다툼 때문에 크게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이나 물놀이, 빙수 만들기와 같은 활동적인 일정에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은 일정에는 없었던 진로상담이었다. 캠프에 간 날 밤, 중3 아이들에게 진로에 관한 고민을 말해보라고 했고, 장난스럽기만 하던 아이들도 모두 진지하게 상담에 임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웠지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가장 보람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센터 아이들이 고민 상담도 하고, 장난도 치는 등 우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너무 금방 헤어진 것 같아 정말 아쉬웠다. 아이들이 내년에도 또 왔으면 좋겠다고, 벌써 헤어지기 아쉽다고 말할 때는 정말 뿌듯했던 것 같다. 제대로 된 선생님 역할도 못해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센터 선생님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셔서 행복하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다. 한 달간 준비한 봉사단 활동이 일주일 만에 끝나버려 아쉽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았던 활동을 무사히 마친 것 같아 후련한 마음이 가장 크다. 다음에는 국내교육봉사 뿐만 아니라 해외봉사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우*희

처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때, 냉랭한 반응이 생각난다. 첫인사에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마주하였기에 아이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어설픈 모습이었을 것이다. 일주일을 함께해야하는 아이들이었기에 얼굴을 익히고,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다가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다음 날 수업시간, 나는 영어학습시간에 캔들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 영어 실력에 맞추기엔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학습지로만 진행하여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읽어보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잘 따라와 주었지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 전 날 레크리에이션을 가장 걱정했었는데, 처음에는 소극적이었고, 무반응이었던 아이들이 후반부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서로 센터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던 아이들, 다른 학년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은 끝나고 "형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하는 평을 남겼다.

우리가 그 아이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 준 것 같아 뿌듯하고, 보람찼다. 어려운 수업, 부족한 진행인 레크리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고, 더 완성도 높은 활동을 하고 싶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자신의 뒷정리를 할 줄 알고 있으며, 서로 배려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말을 가끔씩 안 들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센터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더 잘 인솔하려 노력 했던 것 같다. 마지막 캠프 때가 가장 인상깊다. 우리는 음식의 양을 준비 할 때 적당한 양에, 대중적일 거라는 입맛에 맞췄다고 생각했었지만, 바나나를 못 먹는 아이, 먹는 양이 적은 여자아이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너무 늦게 아이들을 고려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아쉬웠다.

마지막 헤어질 때, 우리는 마치 우리만 아쉬워하는 것 같아 속상해했었다. 원장님께 사진을 보내드리려 연락하였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들 내년에도 또 오냐고, 물어보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처음에 5일 매우 긴 봉사활동이 될 줄 알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이제 막 친해졌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헤어짐은 만남의 의미를 없애는 것만 같았다. 다시 만날 일이 있었으면 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밝기를 바란다.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이*빈

1학기 종강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았던 시점에,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보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학기 때 친해진 같은 학부 동기 2명과 함께 이화 봉사단 국내 교육봉사활동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광주 비전스쿨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단지 모집인원이 3명이어서 동기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벼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광주 비전스쿨을 지원하여 4박 5일여간의 시간동안 방문한 기억들은 저의 이번 여름방학의 전부였다고 할 만큼 너무나도 의미있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되어 광주 비전스쿨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비전스쿨을 방문하기 전 한 달 여간 봉사단원들과 함께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 4박 5일여간의 활동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꾸며나갈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며 활동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할 활동계획을 세우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막막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시기여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혹시라도 의도치않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어쩌나 등의 고민들과 걱정이 들어서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우려와 걱정또한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전스쿨을 방문하면서 생활을 해보니 방문 전의 걱정과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는 아이들도 낯을 가리고 부끄러워하여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 팀을 나누고 각자의 팀 선생님들과 만나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레크레이션 활동이 있다는 말에 설레하면서 눈을 반짝거리고, 꼭 이겨서 상품을 타겠다고 승부욕을 불태우면서 계속 선생님께 질문이 있다고 재잘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앞으로의 활동들이 기대될 정도로 아이들이 의욕을 가져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첫째날, 오후에 도착을 하여 아이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팀을 나누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 헤어졌고 둘째날 아침에 만나 마니또를 뽑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고, 오전에는 학년 별로 영어인터뷰, 영어와 함께하는 양초만들기, 영어팝송 수업으로 선생님들마다 한 수업씩 맡아서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한다는 말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막상 수업을 시작하여 발표를 하고 열심히 참여하면 초콜릿과 사탕을 주겠다고 말 한마디에 서로 먼저 발표하겠다고 손을 드는 모습이 너무 예뻐고 제가 맡은 영어인터뷰 수업이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인터뷰 내용을 쓰고 발표해 주어서 제가 준비해갔던 이상으로 수업을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영어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로 장소를 옮겨 넓은 공간에서 레크레이션 게임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레크레이션 강사도 아니어서 미숙한 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너무 재밌게 게임을 해주어서 저희도 너무 즐겁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몸으로 말해요'라는 스피드게임이었는데, 저희가 준비해 간 제시어들을 예상치 못하게 잘 표현해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에는 오전에 영어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두뇌퀴즈 시간으로 스토쿠, word

searching, 틀린그림찾기 등 다양한 활동지를 풀게 했는데, 처음에는 두뇌퀴즈라는 말에 아이들이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선착순으로 활동지를 완료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말에 서로 먼저하겠다고 엄청난 집중력으로 활동지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넷째날과 마지막날에는 시골로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캠프를 가서 계곡에서 물놀이, 빙수 만들어먹기 활동, 마을 외부미션, 고기파티, 밤에는 레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날씨가 무지 더워서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1박 2일 캠프를 가장 즐거웠던 활동으로 뽑을 정도로 즐거워했고 아이들과도 가장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활동들이 완벽하지 않았고 활동 진행도 미숙한 한날 병아리 선생님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라주고, 선생님이 고기구워서 못먹고 있다고 '선생님, 드세요' 하면서 쌈을 싸주고 서로 먼저 선생님한테 물려주겠다고 물을 떠오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기도 하면서 고마웠고 미숙한 선생님이라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헤어질 때 무뚝뚝한 중 2,3 남학생들마저도 몇일 더 이따가 가라, 겨울에 다시 꼭 오라고 약속하라며 아쉬운 내색을 비치는 모습에 너무 짧은 시간 정만 들게 하고 떠나는 거 같아 너무 미안했고 저희도 5일이 너무 짧게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봉사활동을 기획했던 한달여간, 그리고 활동을 했던 5일간의 기간이 철없고 어리기만 했던 저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해주었고 저를 좀 더 어른스럽게 성장시켜주었다고 생각하고, 순수하고 예뻐던 아이들의 긍정적인 기운만 받아온 것 같아 이 기간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스쿨에서 함께 활동한 동기 친구들, 비전스쿨 선생님들과 예쁘고 착했던 아이들, 그리고 봉사활동의 기회를 주었던 사회봉사팀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에 사회봉사팀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준다면 다시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